

세계 3대 트레킹 호도협&옥룡설산 자주묻는 질문

◎현지의 날씨는 어떤가요?

호도협/옥룡설산 트레킹의 관문인 여강 지역은 우기와 건기를 나눌 수 있으며 건기 시즌인 11월~3월 사이에 날씨는 가장 파랗고 대부분 맑은 날씨를 유지합니다. 온도는 고도 2000m 이상으로 일교차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건기 시즌인 11월~3월 한낮에는 영상 15도 내외의 온도를 유지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영상 1도 내외의 온도를 보입니다. 영하까지 내려가는 날은 많지 않으므로 트레킹 하시기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계절별 트레킹 장점은 어떻게 있을까요?

- 봄

1. 건기에 딱 좋은 온도, 비 올 확률이 낮아요! 3월에서 5월까지 운남성 평균 최저기온은 6도에서 14도를 유지하고 평균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4도에 이릅니다. 운남성의 봄은 건기이면서도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2. 설산과 꽃의 조화가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해요! 쉽게 볼 수 없는 설산을 배경으로 노랗게 피어난 유채꽃과 분홍빛 두견화가 조화로운 풍광을 선사합니다.

- 여름

1. 설산아구 도달률 최고! 7월에서 8월까지 운남성은 최저 온도 15도에서 최고온도 24도에 이르는 곳으로 한여름에도 덥지 않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으며, 한국의 우기 시즌과 달리 비 올 확률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건기에 매우 좋은 날씨를 자랑합니다.
2.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차마고도 트레킹!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마주하기 힘든 만년설산을 보면서 한 여름의 더위를 잊고, 시원하게 뿜어내는 관음폭포의 강한 물줄기와 푸른 나무들이 뿜어내는 상쾌한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 가을

1. 산행하기 좋은 계절 비 올 확률이 낮아요! 9월에서 11월까지 운남성은 최저 온도 7도에서 최고 온도 23도에 이르는 곳으로 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하여 건기에 매우 좋은 날씨를 자랑합니다.
2. 쾌적하고 여유롭게 걸을 수 있어요! 습도가 적은 편이기에 매우 쾌적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으며, 휴가 시즌을 피한 시즌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

1. 비가 올 확률이 매우 적어 하늘이 맑아요! 운남성의 겨울은 건기 중에서도 특히, 티 없이 맑은 날씨를 자랑하는 시즌입니다.

다. 강우 확률이 5%미만으로 거의 매일 환한 시야를 자랑하는 맑은 하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 한겨울이어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한 겨울인 12월에서 3월까지 운남성의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3도에서 5도를 유지하며, 평균 최고기온도 15에서 21도까지 이릅니다. 한겨울 하면 떠오르는 추위가 아니라 약간 쌀쌀한 초겨울 날씨처럼 느껴집니다. 걷기에는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트레킹을 위한 복장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건기 시즌 트레킹을 위해서는 보온 유지를 위한 레이어드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으면 보온효과가 뛰어나고 현지 상황에 따라 조절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성 내의 위에 플리스 소재 티셔츠를 입어주시고 상황에 따라 바람막이나 윈스토퍼 티셔츠를 착용하고 다운자켓을 입어주시면 됩니다.

산행 중 더우면 옷을 벗어 체온을 낮출 수 있지만 휴식을 취할 때는 옷을 착용한 채로 체온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해외 트레킹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참여 가능할까요?

호도협/옥룡설산 트레킹은 오히려 고산 트레킹이 처음인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가깝게 히말라야 끝자락의 설산들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매력이 있으며 다른 고산 트레킹을 경험해 보기 전 전초전의 성격으로 어렵지 않게 경험해 볼 수 있는 해외 트레킹의 대표적인 코스입니다.

호도협 코스 2000 ~ 2600m 사이의 길을 트레킹 하며 대부분 평지 코스로 중간에 28밴드라는 우리 식의 깔딱 고개 한 번만 넘어주면 크게 어렵지 않은 코스입니다. 옥룡설산의 경우에는 목표점인 4260m 까지 도달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초보자들도 갈 수 있는 높이만큼 체험해본 후에 본인 체력과 컨디션이 허락하는 만큼만 경험하고 하산할 수 있는 코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하산하는 경우에는 파노라마 코스를 통해 더욱 가깝게 설산의 경치를 감상하며 천천히 하산할 수 있어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체험해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고산증에 대한 위험은 없나요?

옥룡설산 상그릴라 코스의 경우 트레킹 시작점이 3500m로 경우에 따라 고산증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옥룡설산 트레킹을 하기 전에 호도협 1박2일 코스에서 어느 정도 고산 적응을 하고 4일차에 옥룡설산 트레킹을 하도록 스케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산증에는 별다른 약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컨디션 유지, 보온,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 절대 무리하지 않아야 하며 트레킹 중 고산증세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하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옥룡설산 트레킹 중 고산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현지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하산하시되 상그릴라 코스에는 설산아구(4260m)까지 오르는 코스 외에 초보자들을 위한 파노라마 코스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당일 체력과 컨디션, 몸 상태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객잔에서 숙박할때는 출지않을까요?

현재 차마 객잔에는 헤초 고객들을 위한 전용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마다 전용 침구류와 전기장판이 구비되어있습니다.

◎ 세면도구와 헤어드라이기, 콘센트 전압 사용은?

객잔에서 1박, 호텔에서 3박 하는 동안 기본적인 세면도구는 준비되어 있지만 개별 기호에 따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호도협 1박2일 트레킹 동안에 머무시는 차마객잔에는 헤어드라이기가 없습니다. 나머지 호텔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20V 전압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여행경비는얼마정도 가지고 가야 하나요?

기사/가이드 경비에 대한 부분과 호텔에서 지불하시는 매너팁을 제외하면 일체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맥주나 주류 등의 비용과 기념품을 구입하실 비용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음식은 어떤가요?

한국 분들이 드시기에 큰 부담이 없도록 한식과 중국 현지식을 입맛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특히 차마객잔의 현지 오골계 백숙이나 사천성 성도의 별미 약선요리 정식으로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으며 트레킹 중에도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고산에 도움이 될만한 식단으로 준비했습니다.

◎ 가방은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호도협 1박2일 산행시에 담을 수 있는 30~35L 정도 사이즈의 배낭과 나머지 짐은 캐리어로 분리해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스틱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하실 때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중국 국내선과 중국에서 다시 돌아오실 때는 수화물로 보내셔야 합니다. 보통 3단으로 된 스틱의 경우 완전히 분해할 경우 캐리어에 담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카메라, 휴대폰 배터리의 경우에는 수화물이 아닌 기내에 들고 타도록 되어 있으며 라이터의 경우 한국에서 출발 시 기내 소지로 1개 가능하지만 중국에서 돌아올 때에는 소지불가(기내/부치는 짐 모두 불가)합니다.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항공 수화물 규정을 따라 주시면 됩니다.